
2026학년도 한성대학교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2026. 3.



【 목 차 】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3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7
III.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10
IV. 문항 분석 및 평가	12
V.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17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 한성대학교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와 제16조를 준수하여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기· 실험고사	교직적성· 인성 검사	기타	
수시	학생부교과 (교과우수, 지역균형, 기회균형(농어촌학생), 기회균형(특성화고교졸업자))	전체	X						X
	학생부종합(한성인재, 기회균형(고른기회), 기회균형(성인학습자), 기회균형(특성화고교졸재직자))	전체	X						X
	실기위주(실기우수자)	예술학부, ICT디자인학부	O			O			X
	실기위주(기회균형(농어촌학생), 기회균형(특성화고교졸업자))	ICT디자인학부	O			O			X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체	O		O				X
정시	수능위주(일반학생)	전체	X						X
	실기위주(일반학생)	예술학부 (회화전공)	O			O			X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성인학습자), 기회균형(특성화고교졸재직자))	전체	X						X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체	O		O				X

- 본교의 2026학년도 수시·정시모집에서 실시한 대학별고사는 ‘면접·구술고사’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시행되었다.
- ‘면접·구술고사’는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일반면접 형태로 운영하므로 ‘면접·구술

고사’는 ‘○’, ‘교과 교육과정 관련여부’는 ‘X’ 항목으로 표기하였다.

- 구체적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 수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단순 지원동기 및 입학 후 학업계획 등을 묻는 인성면접을 실시하였다.
- 이외의 논술 등 필답고사, 교과 지식을 묻는 문제 출제형 면접·구술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와 같은 대학별고사는 일체 실시하지 않았다.
- 본교는 수시와 정시에서 실기위주 전형으로 ‘실기·실험고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체능 실기고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 본교의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법령이행(교칙, 위원회 구성, 결과공개), 영향평가 시행 범위, 자체평가, 결과 분석(분석범위, 작성의 충실성, 현황표) 등 모든 관련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법령 이행	교칙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	○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
	결과 공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https://enter.hansung.ac.kr/ > ‘입시자료’ 메뉴 > ‘영향평가’ 메뉴)	○
영향평가 시행 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
결과 분석	분석 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해당사항 없음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본교의 대학별고사는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 없이 인성을 확인하는 형태의 면접이 진행되어 교과 교육과정 관련 점검 사항인 결과분석(분석 범위, 작성의 충실성, 현황표)은 해당사항이 없다.
- 본교는 재외국민 전형에서 면접·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구술고사는 별도의 제시문이나 문항 없이, 2인의 면접위원이 사전에 서류를 검토하여 질문을 준비한 후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 (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영향평가 실시 결과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 · 구술 고사	실기 · 실형 고사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기타		
수시	학생부교과 (교과우수, 지역균형, 기회균형(농어촌학생), 기회균형(특성화고교졸업자))	전체	X						X	-
	학생부종합(한성인재, 기회균형(고른기회), 기회균형(성인학습자), 기회균형(특성화고교졸재직자))	전체	X						X	-
	실기위주(실기우수자)	예술학부, ICT디자인학부	O			O			X	-
	실기위주(기회균형(농어촌학생), 기회균형(특성화고교졸업자))	ICT디자인학부	O			O			X	-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체	O		O				X	준수
정시	수능위주(일반학생)	전체	X						X	-
	실기위주(일반학생)	예술학부 (회화)	O			O			X	-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성인학습자), 기회균형(특성화고교졸재직자))	전체	X						X	-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체	O		O				X	준수

- 입학전형 및 모집계열별로 실시한 대학별 고사에 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전형에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체능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실기위주 전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대학별고사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와 선다형 고사는 실시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으며, 면접·구술고사 또한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일반면접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항별 적용 교과는 해당사항이 없다.

시험유형	입학 전형	모집 계열 (단위)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선다형고사 제외)						해당없음 (논술 등 필답고사 미실시)								
면접· 구술고사	재외국민전형	전체				해당없음 (인성 5~7분 면접)								
선다형 고사						해당없음 (선다형고사 미실시)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 본교는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4년 12월경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시행세칙」을 규정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였다.
- 규정의 주요 내용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 목적, 정의, 대상, 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시행세칙 [3-1-56]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체영향평가의 정의) ‘자체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분석·영향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6명 이내,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입학처장,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 입학전형개발센터 (부)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 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전형개발센터 (부)센터장이 된다.

제 4 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7 조 (결과의 공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 8 조 (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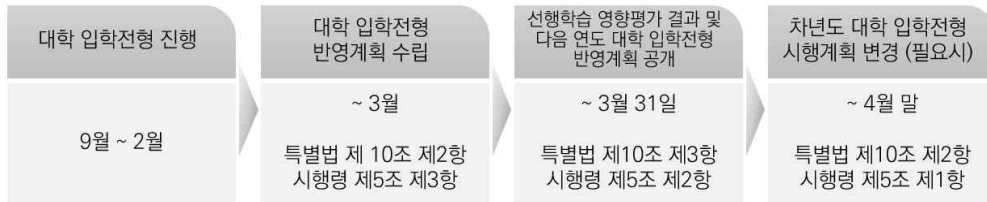
2.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본교는 「자체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입학처에서 기획·운영하는 모든 대학별 고사에 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입학전형에 반영토록 한다.
- 대학별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수준 준수 여부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차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하는 역할을 실시한다.
- 자체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 중 3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43%)하였으며, 외부 위원은 현직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본교 대학별고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 한성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소속(위촉)	성명	직위	비고
위원장	한성대학교	박○○	입학처장	내부 위원 (57%)
위원	한성대학교	김○○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장	
	한성대학교	전○○	입학전형개발센터 부센터장	
	한성대학교	김○○	입학전형개발센터 부팀장	
	○○고등학교(일반고)	이○○	현직교사	외부 위원 (43%)
	○○고등학교(일반고)	신○○	현직교사	
	○○고등학교(일반고)	권○○	현직교사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일정

- 1) 자체평가 보고서 내부·외부 위원 위촉 : ~ 2026. 1. 19.
- 2) 자체평가 보고서 내부 위원 작성 : ~ 2026. 2. 26.
- 3) 자체평가 보고서 외부 위원 작성 : ~ 2026. 2. 27.
- 4) 자체평가 보고서 서면 검토 : ~ 2026. 3. 20.
- 5) 자체평가 보고서 최종보고 및 공지 : ~ 2026. 3. 31.

-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현황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고사유형
수시	재외국민전형	전체	면접·구술고사
정시	재외국민전형	전체	면접·구술고사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 2026학년도 한성대학교 대학별고사 운영 전·중·후 모든 과정에 걸쳐 고등학교 교육 과정 범위 및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 단계별로 철저한 노력을 기울였다.
- 대학별고사 종료 후에는 내부위원 4명, 일반고 교사인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본교의 모든 대학별고사를 검토하였으며, 아래 표를 통해 대학별고사 출제 및 검토에 참여한 위원 현황을 나타냈다.
- 본교에서 운영한 모든 대학별고사는 면접·구술고사의 형태로 고교 교육과정 내 대학 별고사 출제 관련 사항은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였다.
- 면접·구술고사를 실시한 전형 및 모집계열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체계열이다.

전형 및 모집계열별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내부 위원	외부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재외국민전형 (전체)	출제위원	해당 없음		
	검토위원	7명	4명	3명

1. 면접고사 전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전 모집단위를 면접평가 10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지원자들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술 심층 면접이나 문제풀이식 면접이 아닌 학생의 인성과 기초소양(표현력과 태도) 등을 면접 질문으로 활용하는 일반면접을 원칙으로 구성하였다.

2. 면접고사 과정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평가는 [수시] 2025. 8. 13.(수), [정시] 2026. 1. 9.(금) 2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면접평가 교육은 추가로 면접고사 당일에 면접위원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면접평가 교육을 이수한 면접위원이 면접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고사 유의사항 안내, 면접평가 진행절차 주요 확인 사항 등을 면접위원에게 강조하여 전형을 운영하였다.

3. 면접고사 후

면접고사 이후에는 2026학년도 한성대학교 면접평가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외부 자문위원 3인에게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면접평가에서 사용되었던 면접문항 예시와 면접기초자료서를 무작위로 발췌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사전 제출서류 없이, 고사 당일 작성하는 [면접기초자료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 외부 자문위원 3인은 [면접기초자료서]를 토대로 면접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Ⅳ. 문항 분석 및 평가

1. 문항 분석 결과

- 대학별고사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와 선다형 고사는 실시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으며, 면접·구술고사 또한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일반면접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항별 적용 교과는 해당사항이 없다.

2. 2026학년도 한성대학교 면접고사 운영 전형

- 2026학년도 한성대학교는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고사를 폐지하였으며,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만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1) 재외국민 특별전형 개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면접고사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

구분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체 전형 면접고사 100%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일반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으로 구성된다.

구분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일반 재외국민	29명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모집인원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	
합계(명)	29명+@	

- 일반 재외국민 지원자격: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초·중·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및 결혼이주민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12년
- 북한이탈주민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출신자 가능

2) 2026학년도 한성대학교 면접고사 선발방법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심사

- 면접고사 사전에 각 지원자격별 제출서류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쳐 자격[합격/불합격] 판정을 실시한다.
- 자격심사는 교원으로 구성되며,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일체에 대한 검토 및 자격 판정을 전원합의에 의해 실시한다.

선발단계	선발비율	구분	판정여부
사전점검	전체 지원자	지원자격 심사	합격/불합격

(2)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고사 사항

- 면접위원 구성은 수험생 1명에 면접위원 2명으로 배정한다.
- 면접시간은 동일하게 수험생 1인당 5~7분 이내로 실시한다.

선발단계	선발비율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총점
일괄전형	모집단위별 선발대상자	반영비율		100%	100%
		반영 점수	최고점	1,000점	1,000점
			최저점	0점	-

3) 2026학년도 한성대학교 면접고사 평가 방법

(1)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고사 원칙

- 본교 면접고사는 구술 심층 면접이나 문제풀이식 면접이 아닌 학생의 인성과 기초소양(표현력과 태도) 등을 면접 질문으로 활용하는 일반면접을 원칙으로 한다.
- 특히, 사전 제출서류 없이 고사 당일 작성하는 [면접기초자료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며 면접의 유형도 수험생 1인당 5~7분 이내의 질의응답 형태로 제출 서류 내용 확인 면접으로 진행한다.
- 면접문항은 [면접기초자료서] 내에서 개별 맞춤형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서류 평가 내용의 검증 및 인성·기초소양 등을 평가하는 면접고사로 진행한다.

(2)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고사 자료

- [면접기초자료서]는 지원동기, 학업계획, 특별활동, 특기사항으로 지원자의 본교 진학에 대한 자세와 포부 및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 면접기초자료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면접고사 당일 20분 내 수험생 작성 / A4 규격 1장 이내)

면접기초자료서	모집단위		가번호	
---------	------	--	-----	--

1. 지원동기(motive to apply)
2. 학업계획(study plan)
3. 특별(과외)활동, 특기사항(extracurricular activities, special ability)

(3)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질문 예시

- 지원자가 제출한 [면접기초자료서] 서류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자의 주요 활동과 과정 중심의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 그 외의 사항은 질의할 수 없으며,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 또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 특성상 한국어가 다소 미숙하거나 [면접기초자료서] 작성내용이 부실할 수 있으나, 평가의 감점 사유는 안 된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고사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면접고사 예시 문항

- 예1) ○○ 모집단위에 지원하셨습니다.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 예2) ○○ 학업계획을 작성하셨습니다. 해당 학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또한 ○○ 계획을 언급했는데, 해당 계획을 통해 어떠한 역량을 발전시키고 싶은지 설명해주세요.
- 예3) 특기사항으로 ○○를 장시간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이 발전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 예4) 작성한 특기 사항이 지원학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예5)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작성했는데, 협력하는 데 있어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2026학년도 한성대학교 면접고사에 대한 외부위원 검토의견서

- 2026학년도 진행한 면접·구술평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및 수준을 준수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해 현직 일반고 교사인 자문위원 3인에게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모집단위별 면접기초자료서 일부를 제공하였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면접 질문 문항만으로 인성 면접인 것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면접기초자료서를 각 모집단위별로 발췌하여 자료 검증을 의뢰하였다.

1) A외부위원

검토 의견

1.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고사는 사전 서류 제출 없이 고사 당일 20분 동안 수험생이 직접 작성한 면접기초자료서만을 바탕으로 진행됨. 또한 해당 자료의 문항이 지원동기, 학업계획, 특별(과외)활동 및 특기사항 등 학생의 기본 역량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사교육 기관이나 외부의 조력 없이 수험생 스스로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함.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들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어 구사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작성 내용이 미비하더라도 이를 감점하지 않도록 규정함. 이는 수험생이 느끼는 언어적, 심리적 압박감을 덜어주어 결과적으로 지원자의 잠재력과 역량을 보다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함.
3. 실제 수험생들의 면접기초자료서를 검토한 결과, 고교 시절의 코딩 수업, 동아리 리더 활동, 교지 표지 디자인 제작 등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경험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본 면접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매우 평이하고 적절한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됨.

2) B외부위원

검토 의견

1. 수험생 개인별 맞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어느 나라에서 수학을 하였든 자신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면접문항으로 바람직한 문항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인성면접의 경우 전반적으로 커리큘럼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수험생의 고등학교 수학 범위 내에서 면접질문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문항이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고교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3. 재외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우려가 있는데 면접문항이 전반적으로 수험생의 고등학교 수학 범위 내에서 면접질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고교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4.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생의 특성상 미래 발전가능성을 점검하는 면접기초자료서라고 판단됨. 지원동기, 학업계획, 특별활동 등의 사항은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외국고교 또는 재외한국학교에서 일반적인 질문사항으로 수험생에게 부담이 없다고 인식됨.

5. 면접문항의 수준이나 질문 범위가 선행학습에 초점을 맞춘 사교육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의 고등학교 역량이나 관심 분야 등을 토대로 한 평가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3) C외부위원

검토 의견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 평가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면접은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평가 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됨.

1.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면접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생활 및 학습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인성 중심 면접으로 운영되고 있음. 교과와 심화 확장된 내용이나 고난도 학업 성취를 요구하지 않으며, 정규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선행학습을 준비할 필요성이 낮음.

2. 면접 문항은 지원자별 지원동기, 학업계획, 특별활동, 특기사항 등 개인별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맞춤형으로 구성되고 있음. 이는 특정 교과 지식이나 문제 풀이 능력을 평가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경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질문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사교육을 통해 획일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성격임.

3. 질문의 내용 또한 개인별 학습 성취도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성장 가능성, 사회성, 가치관, 태도 등 인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는 교과 선행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이수와 학교생활 참여를 통해 충분히 준비 가능한 범위임.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선행학습 없이도 충분히 응시할 수 있는 평가 방식으로 판단되며,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낮고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V.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1. 출제 및 검토 개선

- 한성대학교는 입학전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학별고사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본교는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회 대학별고사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 2026학년도 본교 대입전형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의 유발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되는 논술 및 적성고사에 대한 미 실시 기조를 유지하였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은 면접평가 전 수험생이 면접기초자료를 20분간 작성한 후, 작성한 면접기초서를 기반으로 한 5~7분 이내의 질의응답 형태로 작성 내용 및 인성을 확인하는 일반면접을 실시하였다.
- 면접평가위원회는 제한된 면접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충분한 제출서류 내용 확인 시간 확보를 위해 수험생별로 질문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를 면접 전에 진행하였다.
- 2026학년도 한성대학교 대입전형에서 시행된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검토위원 분석결과, 면접고사는 특정 교과 지식에 대한 구술 심층 면접이나 문제풀이식 면접이 아닌 수험생이 작성한 단순 면접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을 활용하는 인성 위주의 일반면접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는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한성대학교가 선행학습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여 대학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출제 후 점검 강화

- 한성대학교는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별고사 전·중·후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학 입학전형을 점검하고 자체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학별고사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 면접평가 이후 자체영향평가위원회 외부위원이 면접기초자료서를 바탕으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분석 및 점검하고 있다.
- 종합적으로 본교는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대학별고사(인성면접)에서 자체 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면접방법 및 면접문항을 검토하여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한성대학교는 2027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잣대를 준수하며,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 더불어 향후 대입전형 운영에도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